

익산시, '농기계 지원' 총력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 철벽 대응

익산시, 폭염·한파 대비 재배시설 환경개선... 11억6000만원 투입

북부권 농업인 위해 망성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추가 설치

익산시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농업 기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한 지역 농촌에 다양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영농 효율을 높이는 농기계의 구입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 대행 지원까지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는 영세농업인을 위한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영세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고령이거나 여성인 농업인이 다루기 용이한 소형 농기계를 지원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사업으로 1423명이 혜택을 받았다.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증액한 사업비 4억 1,200만 원을 투입해 300명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큰 수해를 입은 용안과 용동, 망성면 지역에 각 6대씩 보조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침수피해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하기도 했다.

사업에 선정된 농업인은 보행관리기와 동력살포기 등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최대 160만 원 한도로 받는다.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장비도 지원한다.

농업을 통한 농작업 대행도 인기 사업이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농기계 조종이 어려운 고령이나 여성 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이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어 적기 영농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농작업 대행 사업에는 지역 11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운·정지·이앙·수확 등 다양한 농작업을 지원한다.

시는 농업기계 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협에 장비를 지원해 고령이나 여성인 농업인도 기계화된 영농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에 101대의 농기계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증액한 사업비 4억 1,200만 원을 투입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이앙기, 트랙터, 콤팩트 등 8대를 구입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농업기계 장기임대사업인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발족한 대체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이다.

경운·정지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한 후 농작업 공동경영체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은 기계별 내용연수 기간으로 약 5~8년이며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비용의 20%를 내용연수 기간 나눠 납부하면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계를 반납하거나 잔존 가액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올해 시는 논타작물재배 확대를 위해 예산 4억 원을 투입 논공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2개소를 지원한다. 파종기와 트랙터, 콩 콤팩트를 구입해 장기 임대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규모화·단지화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북부권 농업인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망성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설치한다. 분소는 연면적 495㎡ 규모로 조성되며 신축에 16억 5,000만 원, 농업기계와 운영 장비에 1억 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시설원에 농가에게 필요한 관리나 소형트랙터 등이 비치돼 북부권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고령화 등 농촌 여건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업인 편의를 증진하고 농촌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이상기후로 인한 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배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11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저온기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 생강 농가 차광막 지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기후변화 대응 노지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종합관리 기술 등 5개다.

대개 고온성 작물의 적정 재배 최고 온도는 섭씨 35도다. 하지만 여름철 외부온도가 33도인 경우 하우스 내부 온도는 40도 이상으로 오른다. 이 같은 폭염은 시설 내부에 있는 작물이 생육 스트레스를 받거나 열기를 버티지 못해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우스 내부 온도를 5~9도가량만 낮추면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20% 증수할 수 있다.

반대로 마진기다. 한겨울 비닐하우스에 별도의 장치 없이 비닐만 씌워져 있을 경우 시설 온도는 영하로 내려가고, 작물이 동해를 입는다. 겨울철에는 다묘묘목온실을 통해 하우스 내부 온도를 기존 대비 3도가량 끌어올려 저온성 작물의 재배 최저온도 유지가 가능해 동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익산지역 시설원에 하우스 1만 3,000동 중 기후변화 대비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체의 21% 수준인 2,700동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2023~2023년 3년간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시설원에 하우스에 기후변화 대비시설을 설치한다. 올해는 하우스 100여 동에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차광막이나 환풍시설, 안개 분무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앞서 센터는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원예작물 고사 피해가 증가하자 지난 5년간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차광 시설과 알루미늄 스크린 포그 냉방시스템 같은 시설을 130동(15ha)에 지원해온 바 있다.

실제 지난해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최순용씨(망성면)는 "하우스에 다묘묘목온케트를 설치하자 일반 비닐 시설에 비해 하우스 내부 온도가 5~6도 높아져 보온이 잘됐다"며 "수확의 상품성이 좋아지고 수확량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생강 농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현재 익산 생강 재배 면적은 60ha(206농가)로 왕궁지역에 18ha(40농가)가량의 면적이 집중돼 있다.

시는 왕궁농협과 협력해 해당 지역 생강 재배 농가에 차광막과 지주, 유인근 등 영농 자재를 지원해 폭염과 가뭄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 생강 수확이 18%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효과가 검증되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기상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사업과 노지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종합관리 기술 시범사업은 방상관, 관수 시설, 동상해 방지시설, 미세 살수장치, 반사필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화기·착화기 우박 등 이상기상에 대응해 결실관리와 품질 고급화를 추구하고, 서리·저온에 따른 결실 불량 등 기상 피해를 예방·경감해 10% 농가소득 향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범사업 지원과 재배기술 지도로 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 품질 높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자매도시 익산-경주, 상호기부·홍보캠페인 펼쳐

익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자매도시인 경주시와 상호기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두 도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이뤄지며, 시는 상호기부에 앞서 지난 20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자매도시인 익산시와 경주시는 오랜 교류 기간 다져진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내·농협과 시민단체 등도 상호기부에 앞장서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 경주 상호기부에 선뜻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며 "갑질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아름다운 기부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도시는 지난 1998년 결연 이후 자매도시로서 신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새만금 동서도로 간이접안시설 정화활동

군산시는 지난 28일 새만을 맞아 새만금 동서도로의 간이접안시설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새만금 동서도로와 직접 연결된 간이접안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군산시 공직자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간이접안시설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해양 쓰레기와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손상된 간판을 정비하는 등의 작업을 시행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을 맞아 실시한 새만금 동서도로 간이접안시설의 환경정화활동은 우리지역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는 기회였다"며 "시설의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경제 살리기 박차... 입찰공고 단축·선금 지급

익산시, 선금 집행 지급률 최대 100%까지 높여 지급

익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 입찰공고 방식과 선금·선고지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자금 흐름을 신속히 돌리기 위해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기간을 최소화해 단축하고 선지급률을 높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입찰공고에 대해 통상 공고 기간을 최장 40일에서 5일로 단축해 계약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선금·선고지 금액을 신속하게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 미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도울 예정이다.

우선 선금 집행 활성화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면 최대 100%까지 선

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 3자단가 계약에 대해서는 선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기에 계약금 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업체계약도 유도하고 있다.

분기별로 지역 생산물품과 업체를 조사한 목록을 익산시 전 부서에 제공하고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정책 반올림 3기 정책경연대회 개최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정책 반올림 3기의 정책경연대회가 27일 청년들에게 열렸다고 밝혔다.

정책 반올림은 군산시 임용 5년 이하의 8~9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 연구모임으로, MZ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통한 새로운 정책과 경직된 행정 조직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제3기는 상별 부서 직렬 등을 고려해 임용 5년 이하의 8~9급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됐다.

총 3개 조가 참여한 이번 정책대회에서는 조별 제안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정책자문단과 실무부서의 열띤 의견 개진과 체점이 진행됐다.

정책 반올림 3기 정책경연대회에선 △웰니스 관광 도입 및 광역해양레저 단지의 비수기 운영 방안 △육아시간 제 업무대행 보상제 △해안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플로깅 프로그램 및 수거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책 반올림 3기는 시정 혁신과제를 연구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아이디어 발굴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연구해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